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강론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삼위일체 대축일이자 청소년 주일입니다.

요즘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혼란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급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가치를 찾고 정립하는 것이 그만큼 더 힘들어졌습니다. 삶의 중심을 잡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들 앞에 주어지는 삶의 현실은 더욱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올바른 가치를 찾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공허하기만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곧 삼위일체 하느님의 존재 안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은총과 보살핌 안에서 그 모든 시간이 섭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주시리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와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누리던 일상이 제한되고, 관계도 단절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나날들이 감사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다가올 시간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호를 그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며, 그 모든 시간이 섭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간직하고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가 영광으로 드러났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간직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이고,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함께해 주시며,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섭리로 이끌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이 시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정림 라우렌시오 신부 | 교구 청소년국장



제 1 독 서	신명 4,32-34,39-40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제 2 독 서	로마 8,14-17
복 음	마태 28,16-20

주일 진레

제16회 교육 주간(5월 24~30일)

형제애로 평화를 실천하는
가톨릭 교육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꿈이나 이상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CBC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형제애로 평화를 실천하는 가톨릭 교육

지난해 시작된 COVID-19의 세계적 유행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흐트러 놓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미사가 축소되거나 중단되었고,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 시험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협조로 어려움을 이겨 내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는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을 주제로 하여 한 해를 지내면서 사회와 학교에서 평화를 촉진하는 일에 대하여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교회의 교육위원회는 평화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더욱 심화하고자 올해 주제를 “형제애로 평화를 실천하는 가톨릭 교육”으로 정하였습니다.

‘형제애’는 교회의 오랜 전통이며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형제애는 하느님의 부성(父性)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마태 23,9) 하느님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이를 진정한 나눔과 연대로 일치시키는 형제애의 원천이자 힘입니다. 형제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과 일치를 위하여 몸소 인간 본성을 취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필리 2,8 참조).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꿈이나 이상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평화롭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끊임없이 새 창조를 이루시고 인간과 새 계약을 맺으시어(예레 31,31-34 참조), 우리가 언제나 ‘새 마음과 새 영’을 지니게 하셨습니다(에제 36,26 참조). 그리고 참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강생과 부활로 평화의 완성을 보여 주셨습니다(에페 2,14 참조).

그래서 평화의 실현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새롭게 만나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우리가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평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마태 5장 참조).

평화를 실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안에서 형제애를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형제애를 지닌 사람은 다른 이들을 이방인이나 경쟁자, 적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자매로 환대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며 그리스도의 형제기에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께서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년)에서 말씀하셨듯이, 형제애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인류 가족’을 이루면서 이웃의 필요와 요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세상에 정신적 가치들을 더욱 널리 공유하도록 해 줍니다(53항 참조).

사실 이 세상은 형제애와 평화를 이루려는 인류의 수많은 노력과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형제애와 평화는 다양한 사회와 집단에서, 그리고 지역, 국가, 세계의 차원에서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려고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모든 이가 평화의 일꾼으로 거듭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실천합니다.

1. 평화 연대 확장하기

가정, 교회, 사회 안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연민과 연대, 협력과 실천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2. 평화 역사 배우기

평화의 역사 현장들을 답사하고 평화 역사 교육을 통하여 평화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봅시다.

3. 평화를 증진하는 말과 행동하기

온유하고 자비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과 평화를 이루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자연과의 평화를 증진하며, 공동체 안에서 평화 감수성을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4. 평화를 위한 기도 바치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권고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날마다 저녁 9시에 주모경을 바치면서 주님께 평화를 증진할 지혜와 용기를 청합니다.

2021년 5월 교육 주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



축복받은 성경 읽기

열왕기 상권, 열왕기 하권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봤을 '성경 읽기'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포기하기가 일쑤다. 성경 공부도 결국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함인데, 성경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는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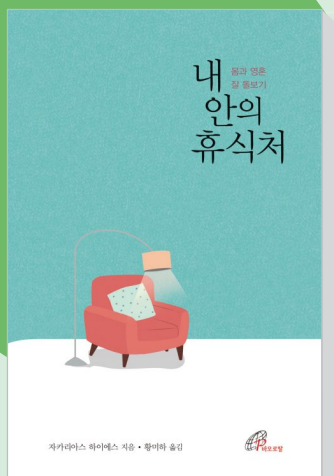
『축복받은 성경 읽기』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이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과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창세기, 탈출기를 시작으로 성경 73권 전체가 차례로 발간 될 예정이다.



- 출판: 성서와함께
- 엮은이: 가톨릭성서모임



내 안의 휴식처

몸과 영혼 잘 돌보기

진정한 휴식처를 알게 하고 그 휴식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빠른 변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면의 고향을 찾고 일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도록 많은 영적 자극을 준다.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의 삶, 저자의 다양한 체험도 곁들여 흥미를 더한다. 유익한 영적 연습과 함께 자신을 성찰하며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안내서이다.

그 휴식처는 특별한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휴식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사람만이 휴식처를 찾을 용기를 갖게 되고 얻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자기의 몸을 관찰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감정과 영혼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렇게 내 안에 쉴 수 있을 때, 참된 휴식처인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음을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 체험하게 한다.

-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자카리아스 하이에스
- 옮긴이: 황미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2021년 환경의 날(6월 5일) 담화문



1972년 6월 5일 국제 연합(UN) 차원에서 처음으로 세계 정상들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스톡홀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성 바오로 6세 교종께서는 특사를 파견하여 “인간이 자연의 생명력과 재생 능력을 조절하는 자연의 법칙을 존중해 나가야 참되고 지속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종께서는 1979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자연환경을 증진하는 사람들의 천상 수호자로 선포 하였고, 1990년 제23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생태계의 위기: 공동 책임 -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를 통하여, 평화로운 사회 발전의 토대인 수많은 윤리 가치들은 생태 환경 문제에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은 신중한 협력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2항 참조)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도처의 사회는 순간적인 만족과 소비주의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야기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 생태학적 문제의 심각성은 인간의 도덕적 위기가 지닌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13항)

베네딕토 16세 교종께서는 2009년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에서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완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계획들은 차세대를 유념해야 하고, 환경, 법, 경제, 정치, 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면서 연대와 세대 간의 정의를 드러내어야 합니다.”(48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2015년 6월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통하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적 위기에 대한 우리의 깊은 책임과 각성을 촉구하셨습니다.

같은 해 2015년 12월, 195개국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 협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가 결의되었습니다. 또한, 파리 협정의 전문은 기후 위기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난한 나라와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성과 세대 간 평등, 생물 다양성의 보존, 노동 정의,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의 추구 등 인류가 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5년 9월 25일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직접 참석하신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에 더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파리 협정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종께서는 최근 국제적인 석유 회사 책임자를 바티칸에 초대하시어 “지구를 구하려면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시며 “청정에너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촉구 하셨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기업들은 이미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환경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이를 위한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가 강화된 경영(ESG 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이 국제적인 기준이 되면서 이제는 기업이 생존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2018년부터 국제 연합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국내에서 이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2050 탄소 중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2021년 4월 말에 의결하고, 이제 탄소 중립 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와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한 당연한 의무의 실행이자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화석 연료와 핵에너지 사용에 의존한 발전에서 ‘100% 재생 에너지 사회’로 바꾸는 것,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육식에서 채식 위주의 생활로 전환하는 것, 평소에 대중 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고 걷기를 생활화하는 것, 절제와 검소한 생활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 이 모든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애덕의 실천이자 배려임을 새롭게 깨닫고 살아가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지구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6월 5일 환경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베스



일림



교구장 동정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오픈식

일시: 6월 2일(수) 15:00

장소: 성산아트홀

사제총회

일시: 6월 3일(목) 11: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창원파티마병원 성당 봉헌식 및 외래동 증축 준공 축복식

일시: 6월 3일(목) 16:30

교구/본당

사제총회

일시: 6월 3일(목) 11: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 피정

일시: 6월 5일(토) 10:00~21: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청년, 선착순 30명 마감

신청: 5월 30일(주일)까지

참가비: 3만 원

준비물: 필기도구, 텀블러, 마스크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위원회/기관/단체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일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미사 시간 추가 및 일정 변경)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6: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6:00/ 명서동성당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2021 평화아카데미

일시: 6월 16일(수) 19:0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강사: 김진향(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주제: 비핵화는 잊으라. 평화의 실천, 종전을 선언하자!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기도

일시: 6월 17일(목)~25일(금) 매일 21:00

기도문: 가톨릭 기도서 109쪽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일시: 6월 25일(금) 19:0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주례: 하춘수 신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강론: 이기문 신부(삼위일체 수도회)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기 타

마산장애인복지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6월 답아보고서 '까치발' 영화 상영

일시: 6월 15일(화) 19:00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6월 6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Viriditas
"생명을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갈드

힐데갈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스킨
힐데비누
EM힐데비누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진주 함 외과의원

- 치핵(치질)/ 변비치료 - 피부 점/ 티눈 제거 수술
- 피부 혹 제거 수술 - 화상 및 상처 치료
- 귀두 표피 환상 절제술 - 각종 예방접종

진주시 중앙동 16-16번지 2층 (시내 교육청 앞)
TEL. 055) 748-0975

조영현 라파엘 박미리 엘리사벳

마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일 립

장소: 마로니에 카페 루프탑(마산합포구
완월서2길 8)
내용: 클래식 기타공연, 영화상영, 시네마토크
이야기손님: 김경옥(영화평론가)
신청: 전화 접수(선착순)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055·247·5194~7

✦ 박혁호 미카엘 신부 모친 선종

박혁호 신부(교정사목 담당)의 모친 김선자
(마르타)님께서 5월 19일(수) 선종하여
가족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故 이응석 프란치스코 신부 11주기 추모미사

일시: 6월 8일(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남경철 신부 010·9514·0825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위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2021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마산교구가톨릭미술가협회는 1996년 강영구(루치오) 신부를 지도 신부로
모시고 가톨릭 미술인 신자들과 함께 창립 모임을 하였다. 그 이후 창립에
필요한 협회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1997년 1월 창립전을 개최하며 교구 가
톨릭 미술인회를 정립해 나갔다.

현재 마산교구미술가협회는 최재상(마티아) 신부가 지도 신부이며, 7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다.

교구가톨릭미술가협회에서는 2021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시는 한국 천주교 15개 교구 17개 미술가회 270여 분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시회로써 마산교구에서는 교구 설정 이후 처음으로 개
최하는 뜻깊은 전시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미술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하여 희망의 빛을 경험하시길 바라며 이에 초대합니다.

■ **오픈식: 6월 2일(수) 15:00, 성산아트홀**

● **전시 일정: 6월 2일(수)~7일(월) 14:00까지, 무료 관람**

Exhibition of
Korean Catholic Artists Association

2021
한국
가톨릭
미술가
협회전



희망의 빛

2021.6.2(수) - 6.7(월)
성산아트홀(전관)
경남 창원시 마산구 동명대로 181 (동호동 2교)
Opening 6.2(수) 15:00

주최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주관 마산교구가톨릭미술가협회

천주교 마산교구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만 있나요?

성당 다니면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기쁘기는커녕 레지오 단원 때문에 짜증 나고 신부님 때문에 불편하고 수녀님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저 자신이 싫어요.

사도 바오로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다. 진정한 내적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처자나 총각 만나 결혼 잘 하고, 아프지 않고 손주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참된 기쁨일까? 돈 걱정 없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면 날마다 걱정 없이 기쁠까?

다음의 6살 난 꼬마의 일기를 읽으며 묵상하다 보면 진정한 내적 기쁨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수건은 집안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걸레가 된다. 걸레가 더러워진 만큼 우리 집은 깨끗하게 된다. 나는 걸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식이 걸레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참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 꼬마 아이가 이야기하는 걸레 같은 사람은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걸레 같은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이다. 수건이 집안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수명을 다하면 걸레가 되어 집안 구석구석을 닦으며 깨끗하게 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듯, 이 꼬마 아이의 눈에 비친 걸레 같은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자신은 구멍 난 내의를 입고 남은 음식을 먹으며, 아끼고 아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걸레 같은 삶과 닮아 있다. 남을 위해 나를 내어 줄 때 아까움도, 원망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눈에는 비합리적이고 모순이지만, 내어줌을 통해 나와 너의 사랑은 더욱 성장하게 되고, 그 안에서 더 큰 내적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같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 역시 그렇게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진정한 내적인 기쁨을 맛보길 원하신다. 더 큰 사랑을 통해 쾌락이나 즐거움을 넘어 더 큰 내적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져다줄 수 없는 하느님 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9-10)라고 말씀하고 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분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성당에 앉아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항구한 믿음을 두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나를 내어 준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이듯,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안에서 먼저 내적 기쁨을 찾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의 힘겨움은 더 큰 기쁨을 향한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걱정들은 모두 어찌면 부질없는 자기 욕심인지도 모른다.